

월요광장

# KTX 광주역의 부활을 바란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광주시가 광주역을 존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사안은 광주시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결정권이 있다. 아직까지는 광주시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않아, 세간에서는 현실적으로 KTX의 광주역 진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광주와 철도는 처음 만남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1914년에 개통된 호남선이 광주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송정리역을 통과하면서, 광주는 여객 및 물류의 간선 노선에서 소외되었다. 그로부터 8년 후 1922년 광주 시내의 철도 진입은 송정리역에서 분기한 담양선이 개통하면서부터다. 또 8년 후 1930년, 광주에서 여수·순천으로 가는 경전선이 건설되었고 비

로소 광주도 철도교통 요충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

일제가 1939년에 수립한 '광주부 시가지계획'(현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지 확장상을 예상하여 대인동 광주역(현 광주소방서)을 현 위치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광주 시가지가 해방·전쟁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새로운 광주역에 대해 몇 가지 변경안이 제안되었으나, 결국에는 1968년 당초 계획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광주와 철도의 두 번째 만남은 기대가 컸으나 1973년 전주-순천 간 호남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실망도 컸다. 광주역을 대규모로 신축하고 열차 편수도 늘려서 광주역의 핵심 광역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시점에서 광주도로라는 역풍을 만나게 되었다. 이용객이 급속하게 고속버스로 이동하였다.

그 이후 광주역은 북쪽으로 시가지 확장을 저해하고 남북교통을 상습적으로 저지시킨다는 이유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여겨졌다. 결국 신역으로 이전한지 6년밖에 지나지 않은 1975년에 광주역을 광산구 광주역대 부근으로 이전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였다. 여객

을 이송하는 철도의 기능은 이제 끝이 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일본과 유럽에서부터 철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신칸센,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E 등을 통해 새로운 고속철도의 르네상스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부선 고속철도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되었다. 서울-부산이 2시간 40분대에 주파되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광주와 세 번째 만남인 고속철도(KTX)가 지역 발전과 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눈총을 받으면서도 40년 이상 자리를 지킨 광주역이 세계로 향하는 가장 빠른 관문으로 도시발전의 새로운 주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나 광주역을 도시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뿌리 깊었으며, 광주시도 국토부의 '1도시 1거점 역' 정책에 편승하여 여전히 중간 입장으로 세월만 보내 버렸다.

하지만 광주역에 KTX는 다시 다녀야만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접근성이다. 배후 인구 80만 명의 동구와 북구 등의 주민이 승용차·택시·도시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이용해서 송정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도

시 내 교통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까운 광주역으로 갈 것인지, 비용·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쪽은 당연히 광주역이다.

두 번째는 도심 활성화의 기능이다. 도시 중앙에 철도역이 없는 세계의 선진도시는 거의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대구·대전만 보더라도 도심에 철도역을 보유하고 있다. 도심 공동화를 심하게 겪고 있는 대전에서는 서대천역의 KTX 유치가 시장 선거의 공약이었으며, 그 지역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바라던 목적을 얻어 냈다.

최근 일부에서 주장하는 광주역 폐지는 결국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KTX의 재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며, 그래서 광주시에서 역과 주변을 활성화시킬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들린다. 하지만 대다수 도시계획과 교통전문가들은 광주역에 KTX는 유치되어야 하며, 그 기능보다 더 나은 도심활성화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광주도 분열하지 않고 합심한다면, KTX 광주역 유치를 왜 이루지 못하겠는가?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 초년 재판장으로서 소회



김선범  
광주지법 판사

래핑한 후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하였고 그 선수는 양리의 패스를 골로 연결하였습니다. 경기는 1 : 1로 비겼고 1차전에서 1 : 0으로 승리했던 프랑스가 월드컵에 진출하였고, 아일랜드는 본선 진출 실패라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위 두 경기는 모두 그 상황이 어찌되었건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는 손으로 공을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심판이 경기 중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축구팀의 월드컵을 위한 준비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법관의 역할도 스포츠심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나 개개의 사건에서 어느 쪽의 행위나 주장이 정해진 규정 속에서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는데 주된 역할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지난 2012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하여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근무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민사 단독판사로 재판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3명이 합의를 통해 판결을 선고하는 합의사건과는 달리 단독사건은 원·피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

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현출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는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 당사자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독판사 혼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찰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2월 13일부터 접수되는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인 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무부담으로 정해져 단독판사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니다.

스포츠에서는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며 오심을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재산권과 법적 지위(형사사건의 경우는 생명, 신체)의 자유까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은 오만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오심을 없애기 위해 비디오판독제 등 발전된 과학기술의 힘을 빌리고 있지만, 재판은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으로서 서면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 재판을 진행하고 변론과 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 다시 한 번 정리된 당사자의 주장과 기록, 관련 자료, 판례 등을 검토하여 판단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며, 선고 전날에는 작성하였던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해가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많은 고민이 수반되는 외로운 과정이지만 오류를 없애기 위해 기꺼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적지 않은 수의 사건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 중 일부 사건이 항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단독판사로서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적은 없지만 잘못된 판단이 없었기를 바라면서 법관에 임용되면서 대법원장 앞에서 선사하였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라는 문구를 가슴 한편에 새기며 오는 하루도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심히 검토합니다.

기고

#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면



김영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이 있다고 한다. 또 자기개발 기회와 높은 급여를 위하여 약 40% 기회가 된다면 회사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한다. 핵심인력이 빠져나가면 생산성 하락 등으로 매출액이 평균 5억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다. 작년 8월 도입되었는데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대표가 직무 기여도가 높아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1 : 2 이상의 비율로 5년 이상 공제에 가입하면 근로자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예로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월 15만원, 사업주가 월 30만원씩 적립하면 5년 후 총 2,864만원(이자 164만원 포함)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금리는 매년 변동되는 복리이자로 금년에는 2.33%가 적용되어 최근 1%대 시중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 내일채움공제 가입금액은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핵심인력이 이직할 때 연평균

급여가 약 4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이직 유인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장기재직 유도에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에게도 기술 축적, 업무 숙련도 및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기업 부담 적립금은 세법상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납입금액의 35~47%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연수원이 실시하는 연수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대학의 계약학과를 통해 핵심인력을 공급받을 때 정부가 지원 하는 등록금을 75%까지 지원받는 등 여러 혜택이 있다. 핵심인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학력, 경력 등 자격이나 기업별 가입 인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하다. 공제에 가입하려면 각 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온라인 홈페이지(sbcplan.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2015년 6월 말 현재까지 전국 2484개 중소기업에서

6131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고, 그중 광주·전남지역은 241개 중소기업에서 495명이 가입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화, 중소기업 현장 인력 구인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등 일차리와 관련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지 못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성장동력 회복, 상생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직업교육 강화 등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중소기업 스스로 근로자 복지, 작업환경 개선, 자기개발 기회 제공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종업원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회사의 성장 과실이 사업주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충분히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술 만한 인재로 키워 놓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린다는 하소연은 그 사장님이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 어느 중소기업 대표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社說

# 방사성 폐기물 바닷길 이송 안전 담보돼야

올 연말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한빛원전의 증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하 방사성 폐기물)이 10월 하순 해로를 통해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험성이 지적된 육로 이송을 포기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해로 이송 또한 쉽지 않은 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만에 하나 있을 대항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환경공단에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을 해로로 이송해 달라는 의뢰를 했다. 공단 측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인도 전 점검을 들어야 예정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방사성 폐기물은 10월 24일경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는 1차분으로 200ℓ 들이 1000드럼에 달한다.

방사성 폐기물의 방폐장 이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대로 미적거리다간 포화 상태를 넘어 한빛원전이 전멸가동 중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 이번 결정은 조업 피해보상 관련 인근 어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민들과의 갈등이 불 보듯 뻤다. 당장 운송 안전성 검토 등 수긍할 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영광 등 해당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로 이송에 따른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송을 책임질 원자력환경공단은 인도 전 점검을 통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상에 좌우되는 바닷길 여건상 완벽한 안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결점 이송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더 불어 해당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송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 광주 스크론폰 안전시설 설치 미뤄선 안 된다

올해 지정된 '광주·전남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스크론폰)' 5곳에서 92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곳당 평균 18건이 넘는 문제

구 급구조교 스크론폰에서도 사고가 잇따라 5명이 부상했다. 전남 고흥 동초교와 나주 금천초교 스크론폰에서도 모두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점이 발견된 셈이다. 이는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인근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민안전처 조사 결과 이들 스크론폰 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 다시 한 번 정리된 당사자의 주장과 기록, 관련 자료, 판례 등을 검토하여 판단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며, 선고 전날에는 작성하였던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해가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많은 고민이 수반되는 외로운 과정이지만 오류를 없애기 위해 기꺼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에 따라 당국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스크론폰을 지정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 하지만 광주·전남에서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아직도 92건이나 되는 등 도로·교통안

전에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도대체 당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크론폰만 지정해 놓고 안전시설 설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스크론폰에서는 운전자들이 서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겠지만, 당국은 특히 이번 교통사고 다발 스크론폰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루빨리 안전시설을 설치해 더 이상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우리 일행은 몇 대의 지프에 나눠 타고 본격적인 사파리(safari) 투어를 시작했다. 장승을 어깨에 둘러맨 건장한 원주민 가이드들이 차량 옆반면에 기대서서 지프는 거친 엔진 소리를 토해 내며 원

시와 생명을 찾아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머리를 돌렸다. 코끼리·사슴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직업교육 강화 등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시와 생명을 찾아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머리를 돌렸다. 코끼리·사슴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직업교육 강화 등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시와 생명을 찾아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머리를 돌렸다. 코끼리·사슴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직업교육 강화 등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사파리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우리 일행은 몇 대의 지프에 나눠 타고 본격적인 사파리(safari) 투어를 시작했다. 장승을 어깨에 둘러맨 건장한 원주민 가이드들이 차량 옆반면에 기대서서 지프는 거친 엔진 소리를 토해 내며 원시의 생명체를 찾아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머리를 돌렸다. 코끼리·사슴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직업교육 강화 등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시와 생명을 찾아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머리를 돌렸다. 코끼리·사슴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직업교육 강화 등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p>光州日報 The Kwangju Ilbo</p>	
<p>사창·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주동성·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p>	<p>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 로젝트 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